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6주일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중 특히 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은 구걸로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구원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자, 억압받고 실망한 하느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행복하다 칭송하십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의 가난과 굶주림과 서글픔이 그 자체로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의 나라가, 하느님의 다스림이, 하느님의 개입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버림받았다 여겨졌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미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병자들과 장애인들이 치유와 위로를 받고, 배고픈 이들이 빵을 얻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하느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곳, 죽은 뒤에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곳, 예수님께서 세속의 마귀들을 쫓아내시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고 있다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억지로 가난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있어야만 완전히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그저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기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이가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진정 가난한 사람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아는 사람이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은 자신의 가난이 전혀 문제 되지 않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한 존재이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할수록 우린 예수님의 구원을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했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들 곁에 계신 예수님과 진정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도움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어집니다. 그 은총 안에서 그저 우린 감사하고 기뻐하는 아이가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이웃을 돕는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서시문 시문 신부 | 교구 청소년국 차장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예레 17,5-8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제 2 독 서	1코린 15,12,16-20
복 음	루카 6,17,20-26

관상: 천국에서의 하느님 체험을 미리 맛보는 것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교회에서 가르치는 관상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하느님과 일치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능한가요?

영성신학에서는 관상을 ‘수득적修得的 관상’과 ‘주부적注賦的 혹은 순수한 관상’으로 나누어 설명을 해왔다. 수득적 관상은 개인의 노력으로써 직관의 능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능동적 관상이라고도 한다.

가령 마음을 가다듬어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깊이 생각하여 무아정적無我靜寂의 경지에 몰입하는 불교의 선禪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주부적 관상은 하느님의 은혜로 인하여 신적神의 영역을 체험하고 신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수동적 관상이라고도 한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감화를 받아 하느님의 본성을 체험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관상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며, 이러한 인간의 노력 역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견해도 있어, 두 가지로 관상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그리고 이렇게 수득적인 관상, 주부적인 관상 등으로 관상을 나누어 설명하다 보니 관상에 대해 처음 접하는 이들은 관상에 대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관상은 수동적이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혹은 가르멜 수도원이나 트라피스트 수도원과 같이 관상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일반 평신도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관상은 그저 앉아서 생각에 빠지는 것도, 초점을 잃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다. 관상은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요, 전례를 통해 평화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관상은 지적인 성취도 아니다. 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아니다. 하느님에 관한 신학적 통찰력 이상의 것이며, 어떤 황홀이나 무아지경, 감정적 흥분이나 감미로움이 아니다. 관상이 가져오는 깨달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관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현대 영성에서 관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우선 서방교회의 여러 성인과 영성가들이 관상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관상을 “진리를 알아차리어 기쁘고 감탄스럽게 바라봄”이라고 정의했다.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하는 길이다. 성 베르나르도는 “하느님 안에서 쉬고 있는 마음의 상승”이 관상이라고 묘사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마태 11,28)고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을 낳게 하는 신적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직관”이라고 다소 어렵게 관상을 설명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관상이란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하느님의 주입된 사랑의 지식이며 동시에 한 단계 한 단계 상승하여 창조주 하느님께 도달할 때까지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관상을 “사랑하는 하느님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은 상태”라고 표현했다. 13세기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스는 관상을 침묵 가운데 하느님과의 일치를 체험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관상의 토양에 우리가 심은 것은 활동의 수확으로 거둬들일 것이며 이것으로 관상의 목표가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관상의 열매는 사랑임을 강조하였다.

요컨대 많은 영성가들이 말하는 공통된 관상에 대한 이해는 “사랑이신 하느님과의 친밀한 일치의 체험”이다. 사랑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삶의 신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천국’ 혹은 ‘하느님 나라’이다. 우리 중에 하느님 나라, 천국에 살고 싶지 않은 이가 있겠는가! 우리 중에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싶은 이가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러한 당신과의 만남을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특정 신분의 사람들에게만 유보해 두셨겠는가! 관상은 천국에서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뵈는 지복직관(至福直觀 1코린 13,12 참조)의 은총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그 마음 안에 관상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아직 씨앗 그대로 있다. 관상기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싹트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관상이 필요하며, 관상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평화가 우리와 함께

고광주 에스더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주일 저녁미사에 서둘러 걸어갑니다. 추위가 매서운 날이면 길목마다 얼어있는 곳을 신경 곤두세워 비껴가야 하고, 하느님께 가는 길에 미소 지어보기도 하지만 얼어붙은 날씨만큼이나 마음 온도를 올리는 쉽지 않습니다. 나름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성당에서 하느님과 만나고 몸도 솔솔 풀리는 것을 느끼며 그 편안함에 잠마져 솔솔 읊니다. 바깥에서 너무 찬 공기를 오래 접했던 탓이라며 날씨 탓을 해 봅니다. 잔잔한 신부님의 강론은 정말 졸음을 이기기 힘들 정도로 자장가 같습니다. 그러다 들려오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신부님의 음성엔 정신이 번쩍 납니다. 아, 미사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정말 기쁩니다. 순간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미사에 오롯이 참여하지 않은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거룩한 미사’를 떠올리면서 한심한 자신을 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신부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가 제일 좋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의 목소리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를 들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안심되고 행복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참 힘든 시기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요. 집에서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득 지니며 웃다가도 외출 준비를 하면서 얼굴은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스크를 얼굴에 쓰는 순간 굳어진 얼굴도 반만 보입니다. 눈동자에 불안감을 가득 실은 채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내려가는 동안 멈추는 층이 생기면 더 긴장하여 엘리베이터 구석에 붙어 섭니다. 마스크 너머 두려운 눈초리로 고개 인사만 서로 나눕니다.

불안, 지금은 서로를 불신하는 것을 넘어 불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침만 튀기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면 지금은 입을 열기가 무섭습니다. 성당에서도 하느님을 경외하며 바치는 사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금지되어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 입의 역할을 금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평화를 바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보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인 이기주의”겠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코로나에 걸려 남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지쳐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손을 씻고 거리를 두며 백신을 맞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니 머릿속을 덮어버렸습니다. 불안에 잠식당해 이기주의에 물들어 버린 나를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 때문에 또 죄책감이 듭니다. 오늘도 하루의 반성을 더해서 항상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신명으로 메우고 ‘마음을 다하여’ 석전동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아카펠라 성가와 함께 주일미사가 시작된다. 뜰의 스산한 겨울풍경과는 달리, 성전의 밝고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와 어우러져 은혜로운 시간을 예감케 한다. 아카펠라라고 했지만, 반주자를 구하지 못한 차선책이다. 반주자가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신자들의 힘을 모은다. 비록 약간의 엇박자가 있고 음이 고르지 못할지라도 진심어린 신자들의 노래는 마스크 속에서도 감동이 되고 예술이 된다.

무반주에도 굴하지 않는 노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로부터 미사곡도 노중래 비오 주임 신부의 선창으로, 무반주에도 굴하지 않는 신자들의 노래로 이어진다. ‘못 불리도 괜찮으니 소리만 내어달라’는 사제의 속마음을 간파한 듯 성심성의껏 소리를 합친다. 신자들은 뚝하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없고, 노래를 부르며 주님 가까이 오른다.

마산의 도심지라고는 하나 작은 본당 석전동성당에는 연로한 신자들이 많기도 많다. 젊은 신자들을 찾기가 힘들어 자꾸 가라앉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노중래 신부는 지난해 부임하여 한동안 이러한 현상들을 파악하고, 지난 7월에 사목위원들을 개편하면서 적극적인 사목방향을 잡았다. 성당에 오면 정답고, 미사에서는 ‘흥이 나고 신명이 나는’ 시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굳은

얼굴로 앉아 시간을 때우는 일이 없도록 마음을 온통 쏟았다. 무덤덤하게 돌아가는 신자들이 없게 하려고 몸을 던졌다.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목소리를 돋우고, 노래로 장단을 맞추었다. 미사 중간 중간 신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을 붙이며 함께하여 살아 있는 전례가 되도록 했다. 뭐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소신으로 “으샤으샤!” 해댄다.

절대 잊지 못할 사랑과 열정의 시간

양덕동성당에서 분가하여 1991년 6월 28일 설립한 석전동성당은 석전1동의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을 임시성전으로 사용하며 시작했다. 사제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분들이 30여 년 전 일들을 엮고제 일처럼 입에 올린다. 김경호 베드로 사목회장, 한명희 안나 부회장, 김창도 요셉 부회장, 신혜정 프란치스카 총무, 황숙희 플로라 사무장은 초기의 애환을 함께 겪었다. 단연 으뜸 화제는 ‘비누장사’였다. 한명희 안나가 말을 꺼내자 너도나도 할 말이 많았다. 비누를 만들기 위해 여기저기서 폐유를 수거하는 일에 나섰던 것에는 목소리가 커졌다. 비누를 굳히고 반듯하게 자르지 못해 우왕좌왕했던 일에는 웃음을 담았다. 교구의 본당마다 팔려다니고, 전국망으로 팔려 나간 비누에 대해 부딪힘이 물어났다. 안나의 눈에 양젖물이 튀어 큰일 날 뻔했던 일도 있었다. 변창한 비누공장 덕분에 무사히 성전을 건축하고 1997년 6월 성전 봉헌식을 치렀다. 그리고 호계성당에 노하우를 잘 전수하고 이름을 날리던 비누공장은 고이 접었다.

천장 보수공사의 시간 또한 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었다. 김경호 베드로는 지금처럼 큰 책임을 맡지 않은 시절에도 성당에 일이 있으면 술선수범 소매를 걷었다. 한번은 성전 천장이 찌그덕 했다. 미사 중에 내려앉지나 않을까 모두들 긴장했다. 공사비용이 많이 들까 고민이 컸다. 그때 천장 위 공간으로 조심스레 올라가



2021년 재의수요일 새벽미사를 마치고

부실공사로 불거진 문제를 알아내고 본당 형제들의 힘을 모았다. 업체에 맡기지 않으려고 직장이 있는 형제들이 토요일마다 모여 조금씩 일을 했다. 김창도 요셉도 선원 일을 하면서 휴가가 되면 페인트를 맡아 도왔다. 그러다 보니 수리기간이 1년 정도 걸렸지만, 신자들의 손으로 단단하게 복구한 자부심이 컸다.

쭈글, 위축, 주눅 같은 낱말은 사절

지난해 6월 본당설립 30주년을 맞았지만, 본당의 날에도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선물만 나누고 아쉬움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코로나를 방패로 하여 안일하게 지내는 건 문제라고 노중래 신부는 판단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사람을 구해야 하고 사랑은 싹트지 않는가. 긴장 속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했다. 쭈글쭈글한 신자들의 마음을 펴게 하고 신앙의 기쁨이 뿜지 않게 하려면 사소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몇 배로 뛰어다니며 신자들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성탄선물은 색다르게 준비했다. 하얀 비닐배낭에 다 아삭 달콤한 웨하스를 비롯하여 열 가지가 넘는 과자종류를 넣었다. 성탄미사를 마친 거룩한 밤에 저마다 선물배낭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신자들의 어깨에 하얗게 은총의 눈이 내린 것 같았다고 했다. 연말 송년미사에서는 또 다른 이벤트가 있었다. 1년을 뒤돌아보는 동영상 만들어 신자들과 공유했다. 코로나라는 괴물의 손을 피해서도 주님 안에서 함께한 평화의 시간들을 되새기며 마무리하는 인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동영상은 원하는 경우 멀리 있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송하여 새해를 맞는 희망이 피어오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요즈음 석전동성당에서는 ‘바오로회’를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때 본당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바오로회의 팔팔한 일꾼들은 연로하게 되거나 떠나게 되어 주춤거린다. 사목위원들과 다른 축의 젊은 힘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본당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

성전에서 앉을 자리를 찾으면 성경구절이 먼저 반겨주는 성당이다. 거리두기를 표시한 자리에 책갈피가 붙어있다. “네 앞날은 희망이 있다.”(예레 31.17)란 말씀의 책갈피가 붙은 자리에서 마음이 열린다. 미사를 마치고 나온 뜰에서는 복지분과에서 진한 국물을 우려 끓인 온기가 담긴 시락국 봉지를 어르신들에게 나눈다. 석전동성당은 위기의 틈새를 찾아내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싹을 틔운다.





기억할 선종 사제
김재석(요셉) 신부
1987년 2월 18일

지구장 본당 방문

일사: 2월 16일(수)
본당: 가음동/ 대방동/ 양곡/ 반송/
사림동/ 서포선교/ 진교/ 하동/
남해
일사: 2월 17일(목)
본당: 삼계/ 호계/ 성심원(준)/ 함양/
안의선교/ 거창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사: 2월 15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예비신학교 담임 교안 연수

일사: 2월 15일(화) 10:30
장소: 교구청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 2학년 입사

일사: 2월 17일(목)

광주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입사

일사: 2월 18일(금)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일사: 2월 17일(목) 11:00
장소: 교구청

가정성화와 생명수호미사

일사: 2월 20일(주일) 11:00
장소: 회원동성당

위원회/기관/단체

민족화해위원회 정기총회

일사: 2월 16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마리아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2월 기도모임

일사: 2월 21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세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코로나19 외국인주민 통역 서비스

교구 내 외국인주민의 코로나19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이외에도 본당 내 외국인주민들과 기업체 외국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창원이주민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능언어: 영어, 중국어, 필리핀(타갈로그어), 태국어, 베트남어, 파키스탄어, 스리랑카어, 인도어, 터키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카자흐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테툼어)

문의: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기 타

202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추가): 2월 25일(금)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2월 19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한국외방선교회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소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장맛
백합 매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본사 053)857-2037
서울 02)02-2202-8392
대구 053)257-1771
http://spcfood.co.kr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성심인애원 직원 채용 공고

모집: 생활재활교사
접수: 2월 13일(주일)까지
근무지역: 경남 산청
※ 자세한 내용은 산청성심원 홈페이지
(<http://www.sungsim1.or.kr/>) 참조
바랍니다.

가톨릭상담심리사 2급, 3급 자격과정 안내

일정: 3월 12일(토)~6월 11일(토) 7주간(42시간)
2, 4주 토요일 09:00~16:00(6시간)
장소: 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 291-28
수강료: 30만 원, 계좌-하나은행 160-890028-51604,
(재)천주교마산교구
접수: 2월 25일(금)까지
주관: 마산가톨릭상담심리학회
(<http://cafe.daum.net/mscpa>)
문의: 070·8877·3217, mscps@hanmail.net



신입, 복학 예정 신학생 피정



교구 성소국(국장: 최문성 마르코 신부)은 2022년 광주가톨릭대학교 입학 앞둔 신입생과 복학을 앞둔 신학생들을 위한 피정을 1월 26일부터 27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피정에는 1월에 부제품을 받은 2명의 부제와 변종원 요셉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하여 신학생들의 성소에 대한 재발견과 사제성소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다짐들을 함께 나누었다. 신학생들은 각자 하느님 뜻을 찾는 성소 식별의 중요성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다.



모세의 시나이산 등정(탈출 25-31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순례는 시나이산 아래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시나이산 자락 아래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례에서 우리는 모세와 함께 시나이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는 이집트의 치안이 지극히 불안정하여 시나이산 등반은 불가능합니다. 언제쯤 다시 시나이산에 오를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통하여 모세와 함께 침묵 속에서 그 산을 오를 것입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나이산에서 맺은 계약의 표지가 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 판'을 하느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때 시나이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곳에서 사십 일을 보냈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과 후르가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십 일 동안 그 산 위에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탈출기 25장부터 31장까지를 읽어보면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서 직접 쓰신 두 증언판을 받아서 내려온 사실은 탈출기 31장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건설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지시하십니다.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될 기물들의 제작부터 성막에서 일할 사제들의 임직식과 복식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세한 내용들을 하느님께서 일일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무려 일곱 장에 이르는 분량을 성막의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할애한다는 사실은 성막의 건설이 시나이 계약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시나이 계약과 성막의 건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시나이 계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혜택은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모든 축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이 거룩함은 부정함과 양립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의 현존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갖 부정함에서 보호될 거룩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게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설하게 될 성막의 모형과 설계도를 하느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탈출기에 나오는 성막의 모형은 광야라는 곳에 세우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성서학자들은 탈출기에 묘사된 성막이 훗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역투사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는 이런 시도를 한 것일까요? 어쩌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당시에 유행하던 페니키아의 성전 건축 양식에 따라 세워진, 사람이 세운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유래한 것임을, 곧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건네주셨던 모형에 따라 건설된 것임을 강조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현존하시게 됨에 따라 하느님께서 머무실 거룩한 장소인 성막 외에도 성막에서 봉사할 거룩한 사람들을 성별할 필요가 생깁니다. 또 거룩한 장소뿐만 아니라 거룩한 시간의 설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간과 달, 해단위로 더 특별히 거룩하게 지낼 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제일에 관한 규정의 기원입니다. 또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주님으로부터 사십 일 동안 들었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와 함께 시나이산 정상에 머물며 거룩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